

# 강진군, 초다수성 미르찰벼 계약재배 추진

### 두보식품(주)과 밥쌀용 원료곡 1000톤 계약 50여 농가 대상 기술교육...100ha 시범 재배

강진군은 지난 21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올 하반기 신품종 찰벼인 미르찰벼를 양곡유통회사 두보식품(주)에 안전하게 납품하기 위해 계약재배 50여 농가를 대상으로 재배 기술교육을 실시했다.

미르찰벼는 2020년에 정식 품종등록이 된 품종으로 밥쌀용이 아닌 찰쌀가루로 가공하기 위해 육성된 초다수 기능성 품종이다.

본래 가공용으로 육성된 품종이지만 지난해 농업기술센터 검토 결과 일반 밥쌀용 찰벼와 식미에 큰 차이가 없어 밥쌀용으로 유통하는 것이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올해 50여 농가, 100ha를 시범 재배해 유통시킬 계획이

다.

이날 교육에 나선 안준섭 작물연구팀장은 “강진군은 미르찰벼를 밥쌀용 납품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공용벼 재배 방식과는 차별화된 재배 방법이 필요하다”며 “제초제 사용, 적기이앙 및 적기 수확, 수확 후 세밀한 건조 수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르찰벼는 단위 면적당(10a) 쌀 생산량이 739kg으로 강진군 주 재배 찰벼 품종인 동진찰(549kg), 백옥찰(526kg) 보다 매우 높다. 가공용 품종의 한계인 낮은 수매가를 감안 하더라도 훨씬 경쟁력이 있다고 농업기술센터는 내다보고 있다.



김춘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금년도 성공적인 미르찰벼 재배 및 유통을 통해 농가 소득 향상은 물론 기존 찰벼의 단계적인 품종교체로 농업인들의 찰벼 품종 선택권을 넓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김진=김영일기자

# 해남군 “흑석산 자연휴양림 숲속음악회 즐기세요”

해남의 대표 산림휴양지인 흑석산자연휴양림에서 숲속음악회가 열린다.

해남군은 오는 5월 14일 흑석산 자연휴양림 유아숲체험원 야외무대에서 목포시립교향악단을 초청해 음악회를 갖는다.

‘Forest:Bloom 숲이 피어나다’를 주제로 한 이번 음악회에서는 목포시립교향악단의 베토벤 삼중협주곡, 로시니의 율리엄 텔 서곡연주와 함께 이경선 바이올리니스트, 김민지 첼리스트, 송영민 피아니스트의 협연이 이뤄진다.

또한 베이스 바리톤 김철웅 목포대 교수가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중 “다시는 날지 못 하리” 등으로 가곡 무대를 선보인다.

공연은 사전예약(흑석산 자연휴양림 ☎ 061-530-5734~8)해야 관람이 가능하다.

흑석산 자연휴양림에서는 매년 숲속 음악회를 개최해 왔으나,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이번 공연은 3년만에 열리게 됐다.

군 관계자는 “5월의 싱그러움이 가득한 자연휴양림에서 즐기는 클래식 선율은 더욱 감동으로 다가올 것이다”며 “코로나19로 지친 마음, 숲에서 치유와 위로를 받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기동취재본부



# 완도군, 공직 혁신의 새로운 중심 ‘제1기 주니어보드’ 출범

### MZ세대의 소통 방식으로 공직 사회 새로운 변화 기대

완도군이 지난 22일 조직 문화 개선과 균형 혁신을 위해 MZ세대 직원으로 구성된 ‘혁신 주니어보드’ 워크숍을 개최했다.

혁신 주니어보드는 혁신 모임으로 젊은 직원들의 참여와 수평적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균형 발전의 새로운 토대를 다지는 회의체이다.

구성은 1980년대~2000년대 초 출생한 밀레니엄(M) 세대와 90년대 중반 이후 출생한 Z세대를 총칭하는 MZ세대인 직원 총 28명으로 구성됐다.

완도군 전체 정원 738명 중 MZ세대가 320명(43.3%)을 차지할 정도로, 이들의 역할과 생각이 반영된 조직문화 혁신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주니어보드 역할 및 활동사항을 안내하고 4개조로 나눠 각 조의 이름, 조장 및 총무 등을 정하였으며, 향후 조직 혁신을 위한 효율적인 운영 방식 등에 대한 열띤 논의를 했다.

혁신 모임은 분기별 1회 이상 정례화 운영되며, 역량 강화를 위한 벤치마킹, 선진지 견학 등을 운영하여 균형 발전의 디딤돌을 세울 예정이다.

또한 혁신 모임을 통해 발굴한 안건은 간부 공무원과 회의 등을 통해 직접 제안하면, 군은 해당 안건에 대해 철저한 피드백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해 균형 역량을 한 단계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방침이다.

강성운 군수 권한대행은 “MZ세대들의 소중한 의견과 참신한 아이디어가 조직문화를 바꾸는 시발점이 되어, 공직사회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기를 기대한다”며, “내실있고 수평적인 협업 문화 조성으로 시대적 흐름에 대응하는 행정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 진도군, 농가소득 증대·일자리 창출 위한 단계별 음식 교육 실시

### 지역 농수특산물 활용...2022 맘마미아 프로젝트 진행



진도군이 지역 농수특산물을 활용, 식품가공 개발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해 ‘2022 맘마미아 프로젝트’를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다.

군은 1년동안 단계별 교육 과정으로 농식품 가공과 특산물 개발을 비롯 창업 등을 원하는 농업인들에게 기술을 전수해 농가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상반기 주요 교육과정은 ▲쿠키클래스 기초반 ▲브런치 클래스반 ▲밀키트 창업반 등을 단계별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개인이 창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일반 조리자격증반을 넘어 호텔·레스토랑 메뉴 등 높은 수준의 교육을 함께 실시한다.

하반기에는 디저트 중심의 ▲홈카페 레시피반 ▲베이커리 기초반 ▲창업반인 플레이팅 디저트 수업반 등 교육 과정이 단계별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3월부터 ‘쿠키클래스 기초반’은 주 2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심화 과정인 ‘브런치 클래스반’은 5월 3일(화)까지 모집한다. 모집 문의는 진도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팀(061-540-6122).

전북영양주, 흑미달걀말이김밥, 대파치즈떡볶이, 울금크림파스타 등 지역특산물을 활용, 교육생들에게 요리 기술을 전수하고 새로운 레시피 개발 등을 진해운 조리기능장이 강사로 참여해 ‘쿠키 클래스 기초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진도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맘마미아 프로젝트를 통해 주민들이 지역 농수특산물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를 활용한 메뉴를 많이 개발해 농가소득 증대와 다양한 일자리가 창출되는 6차산업 발전을 통해 농촌 경제가 활성화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 장흥군 관산읍, 우리 농업 살리기 풍년기원제 개최

장흥군 관산읍은 지난 21일 천관산 잔디구장에서 올 한 해 풍년 농사를 기원하는 풍년기원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풍년기원제는 관산읍 우리농업살리기위원회 6개 단체(이장자치회·관산농협·살생산자협회·한우협회·한농연관산읍회·농민회)의 주최로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코로나 19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됐다.

‘관산읍 우리농업살리기 풍년기원제’는 조상님께 한 해의 안녕과 풍년 농사를 기원하는 제례 행사로,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해 오고 있다.

위성서 우리농업살리기 위원장은 “코로나19 및 자연재해 등 여러 어려움을 이겨 낸 관산 농민들의 올 한 해 농사가 풍년이길 기원한다”며 “항상 건강하시고 무탈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주호 관산읍장은 “올해는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각종 재해 없이 풍요로운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관산읍 41개 마을 주민 모두 안녕하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장흥=김도영 기자

#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